영보화학, 폴리올레핀 폼 공장 가동

500억원 투입 가교발포제품 생산 … 자동차 내장재 및 건축 단열재용으로

자동차 내장재, 산업기자재용 단열재, 포장·건축용 보온단열재로 사용되는 가교발포 폴리올레핀 폼 생산기업인 영보화학이 청원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영보화학은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에 500억원을 들여 폴리올레핀 폼 공장을 전설했다.

영보화학은 세계 2위의 가교발포 폴리올레핀 폼 생산기업으로 2006년 9월 충청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가교발포 폴리올레핀 폼은 나무나 금속에 비해 가볍고 탄력성과 단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보화학은 청원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이전했으며 협력기업인 무한, 젠테크, 대승산업도 공장을 청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대전에서 설립된 영보화학은 이봉주 회장, 이영식 사장,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원공장의 5월7일 준공식을 가졌다.

<화학저널 2010/05/07>

Copyright © 1991 by CMRI